

한국경제 보도(1.22) 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어제 한국경제는 ‘한발 물러선 野, 정부와 양곡법 출구전략 모색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대안을 짜고 있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야당이 강공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같이 선회한 것은 지지율 쇼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에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출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반대만 할 뿐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쌀값 폭락 지속,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1월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국회 재의표결 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단은 법안의 재발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고, 이를 이미 지난 1월 16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말고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여당의 입법 대안을 신속히 제시하라. 여당이 입법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야간 충분히 협의하여 법 개정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다.

둘째, 여당이 입법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민생 4법을 재발의 할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가격 및 재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재추진 할 것이다.

* 농업민생 4법 재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공동입장문 내용 발췌(25.1.16)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입장을 바꾼적이 없습니다.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재발의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안 제시를 촉구했을 뿐입니다.

지지율 하락 때문에 민주당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는 한국경제 보도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오히려 그동안 입법 대안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최근 협상 대안을 마련하겠
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이 가격·재해 걱정 없이 맘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
든 방안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민주당의 농업민생 4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